

## “지역발전 기회로” “낙후지역 배려를”

### ■ 전남 시·군 통합 관련 단체장 입장 들어보니

###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 일방적 통합 추진 반발도

전남지역에서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일부 자치단체들의 효과적인 자용 통합을 위해서는 통합에 따른 지역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통합 대상 지역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또한, 통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발전 방향 제시와 낙후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 제도적·법률적 장치 마련 등의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부 자치단체가 광역권이 아닌 초 광역권 통합을 원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과 통합 방안을 제시해

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현재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여수·순천·광양 등 광양만권과 목포·무안·신안 등 무안반도, 장흥과 강진군 등에서 일부 자치단체의 통합 반대가 거센 편이다.

특히 무안반도 통합에 매우 부정적 인 무안군의 반대여론이 더욱 확산하고 있고, 통합에 호의적이었던 신안군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대부분 흡수통합에 따른 지역 소외와 함께 혐오시설이 올 것이라는 피해의식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목포시는 반대가 심한 무안에 많은 ‘당근’을 내놓

았다. 통합시청을 무안군민이 원하는 곳에 두고, 서남권 공공기관도 무안과 신안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자율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4천억 원도 무안과 신안지역에 쓰겠다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다양한 ‘섀둑’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무안에서 걱정하고 있는 혐오시설 설치지역은 이미 목포에 자리하도록 정해져 있다”면서 “목포는 더 이상 투자할 것이 없고, 통합되면 무안과 신안에 좋은 시설이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 대상 지역간 충분한 의견 교환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강진과 장흥군 통합에 찬성 입장을

### ■ 전남 통합 거론 지역 단체장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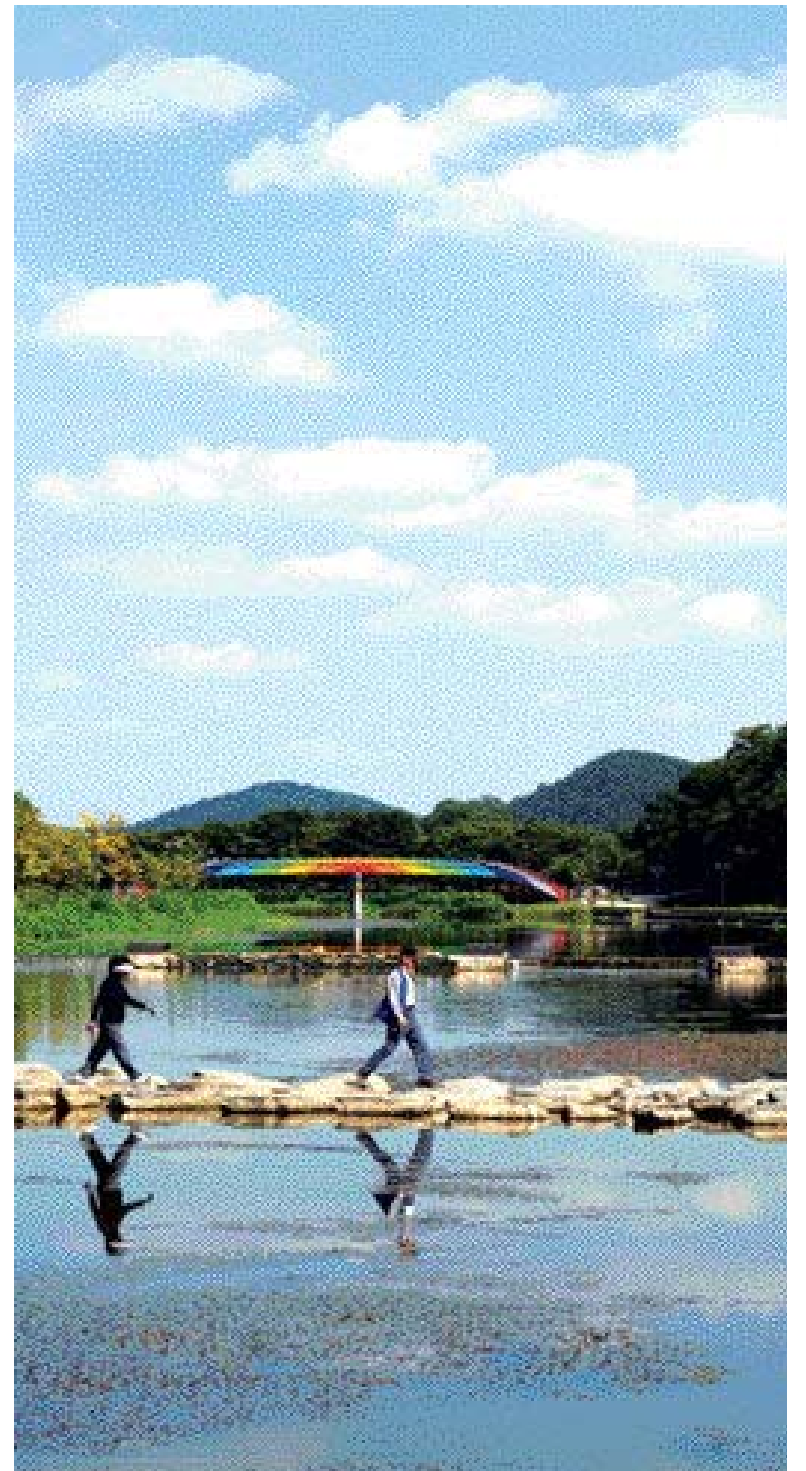
오현섭 여수시장	통합 이점 최대한 실려 지역발전 기회로 삼아야
광양만권 노관규 순천시장	3개 시가 통합되면 지역발전 경쟁력 확보
이성용 광양시장	3개 시만의 통합은 반대, 남해·하동 아울러야
정종득 목포시장	현재제 행정·재정적 효율 떨어져 하루빨리 통합해야
무안반도 박우량 신안군수	장기적 관점에서 통합 나쁘지 않다
서삼석 무안군수	(무안기업도시 운영위 회의 참석으로 인터뷰 무산)
황주홍 강진군수	통합 찬성 하지만 지역민 의견 충분히 반영해야
강진·장흥 이명홍 장흥군수	지방교부세 줄이려는 정부 통합책 반대

보이고 있는 황주홍 강진군수는 “기본적으로 통합에는 찬성하지만, 지역 통합은 단체장의 의지나 중앙정부의 강권에 의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면서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설명회·공청회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이 선행돼 여론이 충분히 숙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역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광양과 장흥의 경우는 초 광역 통합이 아닌 초 광역통합을 원하고 있다.

광양시는 순천과 여수시 3개 시의 통합이 아닌 남해와 하동 등 광양만권 전체를 아우르는 대통합을 주장하고 있고, 장흥도 고흥·보성·완동 등 특량만권 전체를 포함한 초 광역권 통합을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자율통합을 유도하는 한편, 찬반이 엇갈리는 경우 명확한 통합 기준 제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성금 다가온 가을 9일 담양 관방천을 찾는 주민들과 피란 가을 하늘이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초가을 정취를 느끼게 하고 있다. /담양=워치라기자 jrwi@

### 광주역·송정리역 일대 역세권 개발 추진

## 첨단·광산업 연계 클러스터로

광주역, 송정리역이 들어선 이래 처음으로 이 일대를 도시개발 계획에 포함시켜 지역특화 역세권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발의 골자는 역사 일대에 광산업, 첨단산업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백화점, 쇼핑센터, 비즈니스 기능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역·송정리역 일원을 역세권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기본 개발 구상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최근 광주발전연구원에 의뢰했다.

이 용역은 국토해양부가 전국단위 KTX경제권 개발 구상에 광주역, 송정리역을 포함시키기 위해 광주시에 구체적인 역세권 조성방향 수립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올해 말 정부 건의에 앞서 광주역·송정리 역세권 개발사업 구상을 ‘2020 도심주거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장기 전략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역세권 개발면적 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광주발전연구원은 연구자료를 통해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광주역 일대 36만㎡, 광산구 송정동 송정역 169만3천㎡를 개발 가능 지역으로 예상한 바 있다.

시는 이를 역사 주변을 단순하게 상권형성 위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광산업·첨단산업과 연관된 클러스터로 개발하기 위한 구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는 역세권 개발 계획이 가시화할 경우 호남고속철(KTX) 개통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

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KTX 역사를 보유한 대구, 부산, 대전, 대구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민자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인 사 업가시화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영기기자 penfoot@

**재래식**  
정국경/단정/조성/정국경  
가정용·업소용 판매  
010-381-9893  
010-6586-0001

### 국감 다음달 5~24일 실시

여야는 9일 올 국정감사를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달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자리에서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고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 따르면 정기국회 제1차 본회의

는 오는 16일 개최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모든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산적한 법안을 심의토록 했으며, 지난해 결산 심사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의 심사를 시작하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본회의를 개최,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지난해 결산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pkp@kwangju.co.kr



<김창조 가야금>

### 3대 가야금 名器 광주 온다

#### 디자인비엔날레 전시

명인들의 혼이 깃든 국내 3대 가야금 명기(名器)가 광주에 온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9일 “오는 18일 개막하는 제3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제전인 ‘락(樂)’에선 김창조, 김죽과, 황병기 가야금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바이올린 중 스트라디바리우스, 파리넬리가 명기로 손꼽히듯, 국악계에서는 영암출신 가야금 산조의 창시자 김창조(1865~1919년)와 그의 손녀이자 제자 김죽과(1911~1989년), 가야금 명인 황병기(1936~)가 사용한 가야금이 최고의 명기로 인정받고 있다. 3

대 가야금 명기가 한자리에 소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창조 가야금’은 1880년대에 제작됐고, 머리 부분이 양의 뿔처럼 두 가닥으로 갈라져 있는 게 특징이다.

또 ‘김죽과 가야금’은 1960년대 악기장 김광주씨가 만든 명품이고, ‘황병기 가야금’은 19세기 후반에 활동한 악기장 김명철씨가 1900년대 초에 만든 것을 황병기씨가 1960년에 구입한 것이다.

이들 3대 가야금 명기의 정확한 거래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경매에 나올 경우 1억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게 국악계의 설명이다. /오광록기자 kroh@